

박 대통령 탄핵안 압도적 가결...민주노총 “또 다른 투쟁의 출발”

변백선 기자 | 승인 2016.12.09 21:51

부역자와 정책, 모든 적폐 청산 없이 박근혜는 사라지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박근혜 탄핵을 축하합니다. 박근혜 노동정책도 탄핵되었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인간띠 공동행동 참가자들이 하늘로 폭죽을 쏘며 탄핵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 변백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온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다.

국회는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234표라는 압도적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 투표에 찬성 234명, 반대 56명, 무효 7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탄핵안 가결에 대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박근혜 즉각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를 외쳤던 ‘촛불 민심’이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탄핵은 결코 끝이 아니며 또 다른 투쟁의 출발”이라며 “국민주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은 탄핵 후에도 계속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탄핵으로 ‘즉각 퇴진’ 이유는 더욱 명확해졌다. 행여 헌재심판 등 탄핵절차에 기대 반동 따위를 꿈꾸지 말라”고 경고하고 “촛불민심, 국민의 명령은 확고한 ‘즉각 퇴진’이다. 단 하루도 박근혜가 우리 국민의 대통령일 순 없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 국회의원들과 재벌에게도 규탄의 목소리를 전했다. 민주노총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민의의 책임을 공표한 만큼 그들의 이상 박근혜와 더불어 정치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박근혜의 뒤에 숨어 반성조차 않는 그들 역시 청산돼야 할 헌정농단의 공범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벌들을 향해 “적폐의 뿌리는 재벌들이다. 청문회에 나와서도 죄를 부인하며 국민을 우롱했다”며 “재벌들로부터 시작된 반민생 반노동 정책은 물론, 재벌체제를 청산하지 않고선 박근혜는 사라지지 않는다. 때문에 오늘 탄핵은 기회이자 또 하나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금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었지만 국정교과서 폐기, 쉬운 해고 노동개악 폐기 및 한상균 석방,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규명, 의료 및 철도 민영화 중단, 사드배치 철회, 일본군 ‘위안부’ 굴욕합의 폐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언론장악 시도 중단 등 청산해야 할 과제는 너무도 많은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멈추지 말자. 12월 10일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날’은 비루한 권력에 마지막 숨통을 끊고 박근혜 정책 등 적폐청산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탄핵 전에 박근혜를 당장 끌어내리고, 촛불로 국민과 더불어 새로운 세상의 밑불을 지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2만여 명의 노동자, 학생, 시민 등이 여의도 국회 앞을 가득 매워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박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 결과만을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압도적으로 가결이 되자 국회 주위에 모인 노동자, 시민, 학생 등 모두는 한 목소리로 환호를 지르고 열싸 안으며 기뻐했다. 또한 현재 광화문광장은 축제의 분위기 속에 들썩거리며 “국회도 탄핵했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새누리도 공범이다. 새누리당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촉구하고 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에 따라 주말인 10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촛불집회를 ‘축제의 장’으로 열겠다고 밝혔다.

또한 퇴진행동은 박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평일 저녁과 주말마다 집회를 열고 청와대로 향하는 행진을 계속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자 시민들이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자 본회의를 방청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기뻐하며 환호를 지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 변백선 기자



약 2만여 명의 노동자, 농민, 학생, 시민 등이 국회 정문 앞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탄핵안 표결에 앞서 국회 앞에서 탄핵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이 경찰을 사이에 두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 앞서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 © 변백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한 시민이 국회 정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8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이정현 대표가 명패를 집어 넣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를 하고 표결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9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위민관에서 마지막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며 "오늘 오후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며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저의 불찰과 부덕으로 국가적 혼란을 만들게 되어 국민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변백선 기자 n7349794@naver.com